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도참고자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배포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8. 3. 5.(월)	담당부서	자원개발전략과
담당과장	이승렬 과장(044-203-5140) 윤정원 팀장(044-203-5150)	담 당 자	문준선 서기관(044-203-5141) 김은성 사무관(044-203-5151)

제3차 해외자원개발 혁신TF 전체회의 개최

- 「광물자원공사 진단과 처리방향」 권고 -

□ 「**해외자원개발 혁신 TF**(위원장: 박중구 서울과기대 교수)」는 2018. 3. 5.(월) 14:00, 석탄회관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광물자원공사 진단과 처리방향**을 논의하고 이를 정부에 권고했다.

발표 배경

□ 해외자원개발 혁신 특별팀(TF)은 과거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과 책임 규명, 객관적 실태 파악과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운영**('17.11.29~) **중이다.**

○ 국내 자원기술 전문가 그룹인 **지질자원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위탁해 **자원 3사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제성 재평가** 진행('17.12.27~)하고 있다.

□ 광물공사의 **자본잠식 규모가 지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올해도 대규모 차입금 도래에 따른 **유동성 위험을 제기**함에 따라, 특별팀(TF)은 **광물공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이에 특별팀(TF)은 2차례 전체회의와 2차례 분과회의를 통해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태를 점검**하고, 지자연의 **경제성 재평가를 우선적으로 진행했다.**

○ 이를 토대로 특별팀(TF)은 **광물공사가 더 이상 존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광물자원공사 현황

□ **(경영현황)** 광물공사는 지난 정부에서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부채규모 급증**('08년 0.5조 원 ⇨ '16년 5.2조 원), **완전자본잠식** 상태임

○ 볼레오, 암바토비 등 **대규모 사업의 투자비 급증, 생산 지연** 등이 주요 요인

○ **누적 회수액**(0.5조원)은 총 투자액(5.2조원) 대비 10% 수준에 불과하며, 확정된 **누적 손실액**(19.4억불)은 총 투자액 대비 41% 수준

□ **(구조조정)** 정부는 '16.6월,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사는 자산매각, 조직·인력축소 등 구조조정 이행 중

○ 다만, 구조조정 지연, **주요사업 생산실적 저조**로 경영개선 성과는 미흡

□ **(유동성) 올해** 이후 **차입금 만기 도래가 집중**된 상황에서 공사의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우려**로 신용등급 하락, 자금조달 여건 악화

○ 법정자본금 증액을 위한 **공사법 부결** 이후 5월 외화채(5억 달러) 등 올해 총 7,403억 원 차입금 상환에 대한 **유동성 위험이 제기됨**

○ 공사는 유동성 위기 대응을 위해 자산 조기매각, 비용축소 등 **비상경영계획을** 수립('18.1.30)

광물자원공사 진단

경제성 평가 결과 [지질자원연구원]

※ 사업별 경제성 평가 결과는 대외 비공개

□ **(개요)** 지자연은 광물공사 전체 해외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2천억원 이상 4개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함**

* 자원경제, 탐사, 채광, 선광, 제련, 법률 등 지질자원연구원 내·외부 전문가 17명으로 작업팀 구성

○ 프로젝트별 **생산계획의 기술적 검토**(채광량, 품위, 회수율 등) 및 **광물가격 전망의 적정성 점검** 후 사업별 경제성(NPV) 재평가

□ **(검증결과)** 지자연 검증 결과 **주요 사업의 경제성(NPV)은 공사 자체 전망과 대비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됨

○ 이를 토대로 중장기 재무전망을 재산정한 결과, 공사 자체 전망 대비 추가 손실 확대로 **자본잠식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전체 해외사업의 **예상회수율***은 '15년 국회 국정조사 당시 **83%로 전망**되었으나, '17년 기준 공사 자체전망은 58%로 하락하였고, 금번 **지자연 검증 결과를 반영한 예상회수율은 48%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예상회수율 = { 기회수액 + 예상회수액(NPV) } ÷ 기투자액

유동성 문제

□ 공사의 비상경영계획 이행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조달능력의 한계**로 인해 **금년 차입금 상환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

□ 공사의 유동성 위험은 자본잠식 상태, 낮은 자산가치로 인한 수익창출 능력 부재 등으로 인해 **자체적인 채무 상환능력의 한계**에 기인한 바,

○ 정부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향후 유동성 위험 해결이 불가능

□ 공사의 채무불이행 발생시 자산가치 하락 뿐 아니라 **공기업 전반의 신용도 하락 등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 발생이 우려됨**

부실원인 분석

□ TF는 광물공사의 부실 발생의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함

① 자원개발율 목표 등 **정권 차원의 실적 달성**을 위해 무리한 투자

② **책임회피성 의사결정**으로 부실사업에 대한 **천문학적 손실** 초래

③ **과도한 차입의존 및 무분별한 자회사 채무보증**

④ 부실자산 매입 이후에도 **운영능력 부족, 관리 소홀**로 부실 악화

⑤ **이사회의 전문성·책임성 부족**으로 공사에 대한 견제 기능 부재

⑥ 부실요인을 예방하고 사업부서를 감시하는 **내부감사 시스템 미약**

⑦ 자율경영 원칙 하에 **정부의 감독기능과 사채발행 등 관리**도 미흡

< 주요 사례 >

- 볼레오 : 운영사 부도 상황에서 국내 파트너사 합의없이 운영사 지분단독 인수, 프로젝트 채무(PF)를 공사 차입금 및 공사 보증채권으로 전환하여 모든 리스크를 부담
- 암바토비 : 프로젝트 건설비 급증에도 불구하고 주주로서 운영사 견제 미흡, 운영사의 자금악화 상황에서 공사가 운영사에 금융지원, 결국 공사가 대지급

TF의 종합 평가

□ 공사의 비효율적 의사결정 구조, 기술·재무 역량 미흡, 도덕적 해이 등을 감안하면 **글로벌 자원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한계**

○ 광물자원 시장 특성과 해외 정책사례* 등을 감안하면 **공사의 해외 광물자원개발 직접 투자업무 수행의 당위성도 낮음**

* 자국내 특정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국영기업의 사례는 있으나, 다양한 광종의 해외 자원개발 직접 투자를 목적으로 한 국영기업 사례는 없음

□ **공사를 현 체제로 존속시키는 것은** 지속적인 자본잠식과 유동성 위험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

○ **해외사업 계속 운영**시 향후 추가적인 **손실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에 따라 **국민 부담이 가중될 우려**

○ 또한, 공사의 **자체적인 채무상환 능력의 부재**로 향후 차입금 상환 등 **지속적인 유동성 위험에 대한 해결 방안 부재**

○ **광물공사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지원**은 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부결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

□ 한편, **공사를 즉시 청산**할 경우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확대, 공적 기능의 유지와 고용 문제 등에 대한 해결이 곤란하다는 한계

◆ **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 투자 업무는 폐지**하고, **공적 기능** (광업지원, 비축, 해외자원개발 민간지원 등)**은 유지하는 것이 타당**

◆ 정부는 **민간 중심의 해외 광물자원개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정부비축** 등을 통해 국내 자원수급 안정성 보완 필요

광물자원공사 처리방향

대안 검토

□ 특별팀(TF)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광물공사의 처리방향 마련을 위해 다음의 기본원칙 하에 검토함

① 공사의 해외자산은 정리하고, 공적 기능만 유지
② 재정부담(손실) 최소화
③ 공사의 부실 책임에 대한 엄정한 처리
④ 민간에 대한 해외자원개발 지원체계 강화

□ 특별팀(TF)은 광물공사의 처리방향으로 **광물공사를 폐지하고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

□ 특별팀(TF)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공사의 기능조정 및 통폐합 방안을 확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

보완 대책

□ 공사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유동성 관리대책** 필요

○ **공사는 비상경영계획**에 따라 자체 유동성을 확보하고,
○ 필요시 정부 차원의 유동성 관리 필요

□ 유동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부는 **부채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필요

□ 아울러, 정부는 조달청과 광물공사로 **분산된 비축기능에 대한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

□ 해외 투자자산의 경우 사업별 경제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매각여부 등 **처리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

향후 과제

□ TF는「**원인규명·재발방지 분과**」를 구성·운영중이며, 이를 통해 **해외자원개발의 부실 실태와 그 발생원인,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향후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

○ **향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철저한 책임 규명**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

□ 특별팀(TF)은 **민간주도의 해외자원개발 정책방향을 마련할 계획**(상반기)

○ 정부는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예산·세제 지원 및 인력양성·연구개발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 김은성 사무관(☎ 044-203-5151), 문준선 서기관(☎ 044-203-514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해외자원개발 혁신TF 제3차 전체회의 개최계획**

*** 회의는 비공개**

1.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18.3.5(월), 14:00～16:00, 석탄회관

□ **참석자** : 박중구 서울과기대 교수(위원장), 민간위원, 정부위원(산업부, 기재부)

□ **주요내용**

○ 광물공사 해외자원개발사업 경제성 평가 결과 발표 (지질자원연구원)

○ 광물공사 진단 및 처리방향 논의

○ 향후 TF 추진일정 (3.15～16일 TF 워크숍 등)

2. 세부 내용

□ **모두말씀 (5') : 위원장**

□ **추진 경과(10')**

□ **광물공사 해외사업 경제성 평가 결과 : 지질자원연구원 (20')**

□ **광물공사 진단 및 처리 방향(10')**

□ **질의 응답 및 토론 (60')**

□ **향후 TF 추진일정 안내 (10')**

□ **종합정리 (5') : 위원장**

참고 **해외자원개발 혁신TF 위원명단**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책	분과
위원장	박중구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
정부 (2)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	간사
	양충모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
학계 (5)	배위섭	세종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석유
	최선규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 교수	광물
	김연규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가스
	고기영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석유
	임종세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가스
회계 (4)	이광열	EY한영회계법인 상무	석유
	류기홍	대주회계법인 이사	가스
	배홍기	삼정KPMG회계법인 부대표	광물
	김경율	미래세무회계사무소 회계사	광물
법률 (4)	정경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가스
	류권홍	원광대학교 로스쿨 교수	석유
	이준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광물
	조수진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광물
연구기관 등 (3)	도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가스정책연구본부장	가스
	김대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위원	석유
	한상원	해외자원개발협회 부회장	광물